

iMFdirect 블로그로부터:

Listening to and Learning from Asia

작성: [Dominique Strauss-Kahn](#)

금주 초에 한국 대전에서 전세계가 아시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 지역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세계 금융 위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놀라운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7월 12일과 13일에 1,000여 명의 관료, 경제학자, 은행가, 애널리스트, 언론인들이 한국정부와 IMF가 주최한 [Asia 21: Leading the Way Forward](#)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이해관계가 증가하고, 또한 아시아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이해관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무게중심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따라서 아시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개최한 이 컨퍼런스의 목표는 다음의 3가지였습니다.

-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다른 지역에 대해 갖는 의미에 관해 논의
- 세계 경제 정책에 대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역할 검토. 이러한 리더십 역할은 금년에 신흥시장국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된 한국의 리더십으로 대표됩니다.
- 10여 년 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된 나쁜 기억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IMF의 관계를 회복

우리는 이 3가지 목표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1. 아시아의 경제 회복력. 대전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가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아시아는 이 위기의 초기에 심한 타격을 받았으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어 2010년에 7¼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것은 세계 나머지 지역의 4½퍼센트와 유럽의 약 1½퍼센트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아시아의 경제가 이처럼 빨리 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답변은 아시아가 지난 10여 년 간 거시경제, 금융 및 기업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아시아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고통스럽게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고, 아시아가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문제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가 이 지역의 명백한 강점인 수출에 추가하여 국내 투자 및 소비를 기반으로 “제 2의 성장 엔진”을 계속 구축해야 한다는 아시아의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의 인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아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유럽과 미국)이 비교적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발전이 21 세기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려면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 같은 주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특히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아시아 기업계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아시아 저소득 국가들이 “차세대”의 세계 신흥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빈곤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성장하고, 자본을 유지(특히 중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세계 경제 정책 수립에 대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제 정책 수립에 대한 아시아의 발언권과 대표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 중에는 6 개의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금년 11 월에 서울에서 열릴 중요한 G-20 정상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문제를 서울 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대전 컨퍼런스에서, 사공일 위원장(한국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는 한국의 고위 관료들은 전세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아시아의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파급되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 아시아가 견실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MF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G-20's mutual assessment process](#)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정책 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아시아는 향후 5 년 동안 약 2,500 억 달러의 추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1,40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 세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 정책 수립에 대해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에 대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아시아-IMF 의 관계 강화. 저는 처음부터 이 컨퍼런스가 아시아와 IMF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는 IMF 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고 이러한 교훈이 저희의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중점적인 용자 조건, 수지 개선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금융위기 발생 시 자금의 조기 지원 증가, 경제 조정에 대한 인간적 비용 강조.

저는 분명히 IMF 에 대한 모든 비난이나 나쁜 인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나, IMF 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이 기금이 미래에 아시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매우 고무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와 IMF의 관계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몇 가지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Daejeon Deliverables”](#)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3 가지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i) 아시아에 IMF 의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분석을 제공: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파급 효과, 교차 주제, 거시-금융 요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아시아 지역에 저희의 분석과

감시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을 충분히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ii) **세계 금융 안전망의 강화.** IMF 는 이 분야에 대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G-20 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시아의 의견을 경청하여 안전망을 구축할 때 아시아의 필요를 더 많이 반영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금융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도구들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맞춤형 금융위기 방지 제도와 다국가적 접근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자체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것이고, 또한 지역 금융 메커니즘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금융 안전망”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개념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iii)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과 발언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지원.** 이러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IMF 에 대한 아시아의 의결권을 강화할 이른바 “쿼터” 개혁 패키지를 확정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이 서울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완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기금은 아시아의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가 지역적 및 세계적 공조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G-20 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지역 전체에서 온 “아시아의 미래”인 젊은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의와 컨퍼런스에서 아시아가 IMF 에 더 많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이 기금이 아시아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이 지역의 “세컨드 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고, 한 아시아인 동료는 아시아가 이 기금의 세컨드 홈이 될 수도 있다고 재치있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단기간 내에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IMF 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수행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동료들에게도 같은 준비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양방향일 때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새 아시아가 있는 곳에 새 IMF 도 함께 합니다.

iMFDirect 가 2010 년 7 월 15 일에 게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은 IMF 총재입니다. 그는 IMF 총재로 취임하기 전에 프랑스 하원의원과 파리 정치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01 년과 2007 년 사이에는 프랑스 하원의원에 3 회 당선되었고, 2006 년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 경제재정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